

나의 RC생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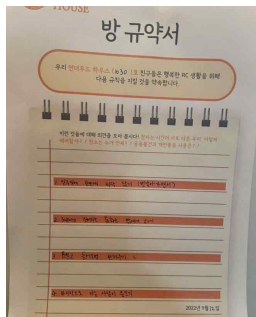
-꿈꾸던 대학교 생활, RC 교육으로 꽃 피우다

우리 22학번은 참 특별한 학번이다. 비대면수업과 대면 수업을 모두 경험해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비대면 수업에 지쳐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대면 행사를 갈망했다. 나는 송도에서 나의 1학년년을 보냈으며 “rc 교육을 빼면 시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rc 활동으로 나의 한 학기를 채워서 갔고 추억들도 차곡차곡 쌓아갔다. 어쩌면 그만큼 자유를 갈망하고 소통을 갈망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참여했는지 모른다. 꿈꾸던 대학교 생활, 나의 rc 생활을 이야기 하려 한다.

첫 번째는 새 학기가 되면 무조건 꼭 참여해야 하는 하우스 OT이다. OT를 해야 비로소 개강을 실감하는데 이번 학기 하우스를 이끌어 갈 새로운 RA와 RC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언더우드 하우스 오리엔테이션 행사에는 지난 학기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되돌아보며 RC 교육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으며 여러 활동 소개와 그에 상응한 퀴즈경품활동을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번 학기 오티행사때는 특별히 언둥이들만을 위한 RC 달력을 직접 프린팅해 나눠주었는데 프로그램의 신청기간과 진행시간을 알 수 있어 편리했으며 나는 내 개인 책상에 부착해 스케줄러로 사용했다. 새로운 RA선배님을 만나고 RC친구들을 사귈수 있는 하우스오티는 RC생활의 포문을 열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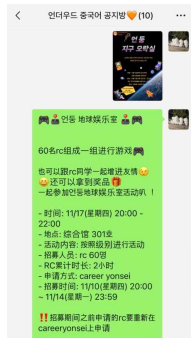
그다음은 “룸메는 내 언둥” 프로그램인데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두명의 룸메이트와 방규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의 생활 패턴과 꼭 지켜주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내 룸메들은 각각 세 살터울이었는데 왕언니인 나를 필두로 하여 97년생, 00년생, 03년생이라 나이차가 크지만 두 동생이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려는 모습이 어른스러웠다. 다행히 우리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기본적인 청소물이나 마지막으로 침대에 눕는 사람이 불끄기 등 “국룰”들을 적고 방문앞에 인증샷과 함께 부착하였다. 이 활동을 계기로 룸메들을 알아가고 친해졌던 것 같다.



우리 언더우드 하우스에서는 외국인 친구들을 위한 히우스공지통역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언더우드 통역사”이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학기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주요하게 하우스 프로그램의 신청공지를 통역하는데 나는 중국어 통역을 맡았다. 사실 한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한국어만 하게되니 모국어글쓰기 실력이 내려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또한 중국유학생친구들이 공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신청기간을 놓쳐서 RC자기주도학습활동시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들을 도울 수 있고 나의 중국어글쓰기연습도 할 수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와 함께한 김우림학우님과 임건혁학우님 세명의 완벽한 페어플레이로 하우스프로그램의 모든 공지를 커버할 수 있었고 프로그램

이 끝난 후 제일 보람을 느꼈던 활동중 하나가 되었다.



언더우드 통역사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대면 활동을 찾아보던 중에 “언동이 미술랭 가이드”를 같이 하자던 친구의 요구에 신청을 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참여율로 인해 신청기간이 조기마감되는 사태가 일어났고 같이 하자던 친구가 신청에서 떨어졌고 생각도 없었던 내가 되려 “오픈런”에 성공하여 활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 첫 오티날에 처음보는 친구와 밥약을 해야하는 마음에 전전긍긍하였지만 팀을 안배받고 다행히 우리 팀에 친구들은 마라탕을 좋아 하는 중식러버들이었다. 미술랭가이드는 송도주변에 맛집을 탐방하여 생생한 후기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우리는 “카이웨이”을 선택하고 약속을 잡았다. 음식점은 꽤 매력적이었고



맛또한 훌륭했다. 우리는 메뉴와 이동거리, 음식 맛등을 평가하여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담당 RA님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 투표를 진행, 아쉽게 우수팀이 되지 못했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은 기억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후 연고전을 참여하여 경기를 관전하고 대학교 응원문화를 체험하며 진정한 연세인으로 거듭났다. 연고전은 나에게 특별한 추억이 있는데 난생처음으로 야구장에 가보았고 야구경기를 관람하였고 친구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며 현장을 즐겼었다. 중간고사를 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피로들을 한방에 날려주는 시원시원한 경기 전개에 가슴이 뻥 뚫렸고 학과 추천으로 관전하게된 농구시합도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다. 연세인으로서 소속감을 느꼈고 연고전을 지지

해주



는 동문회를 보면서 학교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학기 마지막쯤에는 하우스데이를 하는데 이번에는 유미의 세포를 테마로 하였다. 세포들마다 다양한 부스를 개설하여 부스에서 진행되는 미션들을 도장깨기식으로 클리어하면 스티커를 받고 이후 경품추첨을 할 수 있다. 나는 언둥이들과 폴라로이드사진을 찍고 또한 단체줄넘기, 다트, 그림그리기, 촉감으로 물건 맞추기등등여러 활동들을 클리어했고 이어지는 노래경연을 감상하며 즐겁게 하우스데이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한학기동안 하우스오티에서 이야기했던 프로그램 총화를 담은 동영상을 보니 감개가 무량했고 여러 활동을 참여하며 쌓았던 추억들이 새로새록 기억났다. RC프로그램을 통해 옆방친구도 만들고 일명 “짱친”들도 생겼다. 만약 프로그램들을 참여안했다라면 이런 소중한 추억들도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상하며 즐겁게 하우스데이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한학기동안 하우스오티에서 이야기했던 프로그램 총화를 담은 동영상을 보니 감개가 무량했고 여러 활동을 참여하며 쌓았던 추억들이 새로새록 기억났다. RC프로그램을 통해 옆방친구도 만들고 일명 “짱친”들도 생겼다. 만약 프로그램들을 참여안했다라면 이런 소중한 추억들도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이외에도 연세DX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AI & 메타버스 트렌드 세미나를 참여하여 특강을 들었으며 도서관 행사인 RC추천도서 독서인증제에서 유현준교수님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고 온라인백일장과 한줄서평이벤트에 응모하여 최우수상을 거머쥐기도 하였다. 책을 읽기 좋아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나로써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여러 특강과 행사들을 참여하며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키웠던것같다. 하지만 11월에 진행했던 진로의달 강연을 못들었는데 못내 아쉬웠지만 한 학기동안 참여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에게겐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들이었으며 선택과 참여에 후회하지는 않는다.

한학기를 마무리하며 내가 상상했던 캠퍼스 생활을 실천할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많이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학술, 교양, 체육, 문화등등 다양한 파트에서 우리는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얻는다. 송도는 자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융합적 사고를 하게 우리를 알려준다. RC교육이 바로 그런게 아닐까? 딱딱한 교실에서 배우는것보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며 얻는 지식, 섬김과 기여를 실천하며 시민 참여의식을 높이는 일, 소통과 협업을 중시하며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과제들, 무엇보다도 내가 직접 도전하며 지식을 탐구하는 것, 대학교의 참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아닐까? RC프로그램을 통해 RC교육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또 한명의 RA가 되길 꿈꾸고 있다. 꿈꾸던 대학교 생활, RC교육으로 피운 꽃처럼 나도 다른 이에게 꿈과 희망이라는 꽃을 심어주고 싶다.

끝으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RC교육원과 언더우드 하우스 RM교수님과 RA선배님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